

“나의 예술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의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남긴 말이다. 자신의 음악이 귀족사회에서만 향유되는 걸 원치 않았던 신념이 드러난다. 가난과 빈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두드려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베토벤의 마음씨를 이어 받은 남학생이 있다. 음악전공자는 아니지만 꾸준히 바이올린을 통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청심국제고의 송영재(18) 군이다. 송 군에게 봉사활동은 “삶의 에너지”다. 자신의 희생보다 자기 성장 측면에서 얻는 게 많다고 한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행복하단다. 송 군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제2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식에서 우수 청소년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보건복지부장관상 송영재(청심국제고 2)



송영재 군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송 군에게 봉사활동은 ‘봉사’가 아니다. 세끼 밥을 먹듯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사진=한용환기자blog.veritas-a.com/han

봉사도 음악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소외된 곳 찾아바이올린 연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상보다 자신감 획득이 큰 수확

학교생활 ‘이보다더 좋을 순 없다’

송영재 군은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중학교 때 〈공부 9단 오기 10단〉 등의 책을 읽으면서 해외대학 진학을 꿈꾸게 되었어요. 보다 넓은 세상에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여러 학교 가운데 청심국제고를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해외대학 진학과 진학 이후 적응에 유리할 것 같아서였죠.”

청심국제고는 2009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신생학교. 송 군이 진학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졸업생이 없어 진학실적이 전무했다. 선택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보통 신생학교라면 학교 운영에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신생학교인 만큼 제가 학교에 기여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커리큘럼을 신뢰하기도 했어요”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기대만큼 만족스러워요. 해야 할 공부가 많긴 하지만 다른 학교에선 배우기 힘든 것들도 배울 수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진학하는 학교라 오히려 ‘범생이’ 만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와 대외활동 모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많아

요.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덕분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심이 커졌어요. 유학 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된 거죠.”

현재 송 군은 국제반인 2학년4반(1~2반 국내반, 3~4반 국제반)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왕립음악원급수시험(SBRSM)바이올린 부문에서 최고급수인 8급에 도전해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바이올린 실력을 겸비해 교내 동아리 ‘Frontier 관현악’의 악장을 맡고 있다. 정기적으로 분당 보바스기병병원을 찾아 연주봉사를 하고 있다. 교내 영문잡지 〈Quill〉의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

송 군은 인상적인 학교활동 중 하나로 동아리 활동을 꼽았다. “매달 부원들과 함께 연주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엔 4박5일 일정으로 ‘Triple-C’라는 여름자선음악회를 진행했어요.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통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지난 8월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Triple-C’ 여름자선음악회는 충청도 을지대 병원, 경상도 울산 태연재활원, 전라도 광주 애육원, 춘천시립양로

원, 서울 효림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동아리 부원 전원이 모든 음악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송 군은 다섯 지역 모두 순회했다.

사실 송 군은 신입생 시절 고생도 많이 했다. 해외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진학한 터라 온통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에 진이 빠진 것이다. “원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독해도 힘들었고, 에세이 쓰기도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학교에 진학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 녹은 봉사활동

송 군은 봉사와 ‘동고동락’ 한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힘든데도 주말이면 열일제치고사회복지시설과 소아병원 등을 방문한다. 송 군의 활동에 가족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생이 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우체국에서 우편함을 정리하거나 여러 기관의 서류 정리, 청소 등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보다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거죠.”

송 군은 노인보호시설에 가서 말벗이 되거나 목욕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정성 없는 봉사자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친해지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꾸준히 찾아 가면 언젠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죠. 언제부터인가 그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짱’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일산유스챔버오케스트라’ 활동은 송 군에게 또 다른 봉사의 길을 열어주었다. 여러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연주봉사를 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남을 돕는 방법에 대해 눈을 뜬 것.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갖고 있는 재능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었죠. 고등학교 때도 바이올린을 통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Frontier 관현악’ 동아리에 들었고요.”

송 군이 가장 뿌듯해 하는 봉사활동 가운데 하나는 문촌7사회복지관의 특별운영 복지프로그램 ‘스승이 많은 아이들’ 활동이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 군은 고1 겨울 무렵부터 ‘스승이 많은 아이들’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생인 두 형제의 멘토로 활동하는 중이다. 매주 방문해 바이올린을 비롯한 교과학습, 컴퓨터 등에 대한 지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엔 복지관에서 복지후원을 받는 학생들이 자기 재능을 뽐내는 행사가 있었는데 첫째 동생이 멋진 연주를 선보여 매우 뿌듯했다고 한다.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동생들을 찾아왔는데 봉사시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대요.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렇지만 다행히 동생들이 제 진심을 알고 절 믿고 따라와줬어요. 발전속도가 남다르더라고요. 요즘엔 동생들이 장래희망에 대한 얘길 많이 하는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송 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처인 〈나눔의 집〉에선 봉사와 함께 흥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는 국제적인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만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봉사 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등 4가지 성취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꾸준히 시행하는 국제적 자기성찰 프로그램이다.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경에 의해 시작된 이후 국제포상협회 IAA(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가 조직돼 현재 129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의해 시범 운영으로 시작됐다. 2009년부터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16개 시도 광역사무국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기독교 대한 감리회 흥사단 등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더불어 전국적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이하 성취포상제) 한국사무국 김용대 팀장은 성취포상제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찾기 위해 포상지도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스스로 정한 계획에 의해 자기 역량을 개발시켜 나가는 활동”이라며 운영목표를 “청소년기에 필요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취포상제는 활동기간에 따라 은장, 동장, 금장 단계로 나뉜다. 은장은 3개월(12시간 이상/12회), 은장은 6개월(24시간 이상/24회), 금장은 12개월(48시간 이상/48회) 이상 성취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포상담당관의 컨설팅 아래 성취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포상활동담당자의 검증이 이뤄진다. 계획 수립과 검증과정 이후엔 매주 포상활동담당자에 의해 성취활동 지도와 평가가 이뤄지며 한 달에 한 번 포상담당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포상 단계별 활동이 끝나면 포상 승인을 위한 4차에 걸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단계에 준하는 시

상이 이뤄지며 다음 단계 도전이 가능하다. 기간을 채웠어도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기간 연장을 통해 성취활동을 해야 한다. 금장 단계까지 모두 밟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금장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성취포상제는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참여자 2000명 가운데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50%, 대학생이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의지가 약한 청소년, 자기 적성을 찾고 개발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싶은 청소년,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 참여하면 좋다”고 말했다. 단 “성취하겠다는 결심과 그에 따른 꾸준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취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자신에게 닦친 문제를 해결하는 자

습니다.”

김 팀장은 “입시만을 목적으로 참여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본인에서 얻어지는 것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수단 정도라 생각하고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입시는 물론 더 큰 자신을 위해 얻어지는 것이 많으리라 확신합니다.”

성취 목표를 달성해 포상심사를 통과하면 국제포상협회 인증서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김 팀장은 “현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자격 및 인증’란에 기재하고 있다”며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포상에 관한 기록 지침이 명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www.koraward.or.kr,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한국사무국 02)6430-0972~0976, 0969

송영재 군에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 동기를 물어 넣어준 책 **veritas-a.com** 클릭 

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월드비전을 통해 몽골의 ‘간조리그’라는 소년을 후원하고 있다.

사실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봉사는 진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이나 행복합니다. 형식적인 봉사는 서로에게 부담만 주지요. 특히 봉사를 받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폐를 끼치게 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또 지나치게 동정해선 곤란합니다. 그분도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니까요.”

어머니 신신태(53) 씨는 “영재가 봉사하러 갈 때 단 한 번도 ‘봉사하러 가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혔다. 봉사가 일상에 완전히 녹아있다는 의미 일 것이다.

송 군은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봉사 활동으로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기획 코너 ‘열린 교육이 미래의 인재를 만든다’, 주요 일간지 등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송 군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봉사활동 사례가 알려져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봉사하는 CEO 꿈꿔

송 군은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자자할뿐더러 직업 준비 차원의 배움보다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 가득하다는 게 송 군의 설명이다. 연세대나 고려대의 글로벌학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SAT I, SAT II, AP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꾸준히 외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해엔 국제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가평군 학생에너지경연대회에서 관현악 합주로 최우수상도 받았다.

봉사만큼 송 군의 눈길을 끄는 건 컴퓨터. 컴퓨터 테마 바꾸기에 대한 흥미는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지난 여름엔 고려대 청소년 인턴십 과정을 통해 통합 서버관리 솔루션을 하는 ㈜이엘바이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턴 활동을 수료했다. 또 개인적으로 꾸준히 컴퓨터 관련 도서를 읽고 자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다.

어머니 신씨는 “학교에서 영재는 컴퓨터 AS도 전문으로 한다”며 웃었다. 컴퓨터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 많은 친구들이 개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송 군부터 찾는다고. “컴퓨터 고치는 데 시간을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서 영재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적당히 하라고요. 그런데 영재가 ‘내가 10분이면 고칠 수 있는 걸 친구들은 며칠 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 한다’며 제 말문을 막더라고요.”

송 군의 역할모델은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독창성과 열정,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을 배우고 싶단다. “요즘엔 애플에서 출시 예정인 태블릿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웃었다. 스티브 잡스가 현재까지 걸어온 길과 ‘애플’에 대해 기자에게 설명하는 송 군의 모습에서는 꿈에 대한 강한 열정이 묻어 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 이후의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봤다. “IT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관련 회사의 CEO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CEO가 돼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도 좋지만 전 봉사하는 CEO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빈민층 사회 소외계층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물론 바이올린 연주봉사도 항상 할 겁니다.”

/김유하 기자 blog.veritas-a.com/unita

취재 후기 **veritas-a.com** 클릭 

G20 정상회의와 UAE 원전수주
더 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섭니다

謹賀新年

열심히 공부해 **취직해** 월급을 받았네 **키웠네** 남자를 만났네 **결혼해**
우리집 관리비 **아꼈네** 연금을 들었네 **넉넉해**



평생 IBK 당신도 IBK

당신과 함께 넉넉하고 풍족한 금융생활 누릴 수 있도록
평생 함께하는 금융파트너, IBK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기은SG자산운용